

'익산서동축제 2017' 성공적 개최

'청사초롱 소원등 달기' 등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다채... 셔틀버스 운행으로 교통편의 제공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익산서동축제 2017'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익산 금마서동공원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익산의 대표축제인 '익산서동축제'는 역사인물문화축제로 1,400년전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과 시민들의 참여가 어우러지는 시민 참여형 축제다.

올해 서동축제에서는 2,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청사초롱 소원등 달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의 백제 유적 지구를 돌아보는 스텝 투어와 가면 무도회, 시립예술단의 공연 등이 시민들의 호응을 만끽시켰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또한 야간에는 '서동선화 사랑의 빛'을 주제로 LED를 활용한 경관 조성을 통해 야간에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사진 찍기 좋은 서동축제를 연출했다.

올해 서동축제는 '익산 관광도시 원년 선포식'이 진행된 폐막식을 끝으로 내년 서동축제를 기약하며 성대하게 마무리됐다.

한편, 올해 서동축제는 지난해에 많은 지지를 받았던 교통 편의의 제공에 있어 많은 개선책을 내놓았다. 메인 주차장을 미륵사지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행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익산에서 열린 서동축제 2017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익산서동축제 2017'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주제로 금마서동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도움을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시 찾고 싶은 익산! 역사 문화 도시

시 찾고 싶은 익산! 역사 문화 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옹포 상제마을 마을길 초화류 식재

익산시 옹포면 대봉안리 상제마을은 아름다운 마을길 정비에 위해 지난 12일 마을 안길과 곳곳에 철쭉나무와 초화류 등을 식재했다.

상제마을은 주민은 물론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쉽고 추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길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식재에 동참한 주민들은 "봄은 힘들었지만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꽃을 식재해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홍보

군산시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 해소를 더불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의 변경이 가능하다. /군산=장현 기자

익산시, '익산 관광도시 원년' 선포 5개 분야 20개 전략과제 추진

익산시가 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금마면 서동공원 특설무대에서 '익산서동축제2017'의 폐막과 함께 '익산 관광도시 원년'을 선포하고 시민과 함께 행복한 관광도시 익산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수 익산시의회 부의장, 주민, 문화

관광해설사, 요식업, 숙박업, 운송업, 코레일 여행센터 등 관광 업계 종사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선포식에서 관광업계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다짐과 응원 메시지가 동영상으로 전달되고 관광도시 원년 선포사가 이어졌다. 시는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콘텐츠 및 상품개발,

관광브랜드 홍보마케팅, 체류형 및 연계관광상품 개발, 주민 발전역량 강화를 5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미륵사지·보석테마관광지 편의시설 조성사업, 익산역 토탈트래블센터 운영, 서동축제 대표 문화관광축제 육성, 관광인 아카데미 운영 등 20개 중장기 전략 추진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군산=김갑곤 기자

군산시,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홍보

부동산 중개업소 494곳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 발송

군산시는 주민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 494곳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이다. 따라서 이날 이전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 이후 거래를 한 경우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거래해 당사자 간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야 한다는 분쟁이

자주 발생해 왔다.

재산세를 소유권에 따라 일괄계산하게 될 경우 납세자가 수시로 소유권 변동사항과 부동산 이용현황 등을 매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끼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시에서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 명서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로서 하여금 해당 제도를 거래 당사자들에

게 충분히 안내해 재산세 부담을 상호 인지,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분쟁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산시는 과세기준일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취득세 신고 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배부해 납세의무자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간 납세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갑곤 기자

원광대병원, 체담도 내시경 도입

(스파이클래스 DS)

고화질 디지털 영상으로 조기진단·치료 병행

원광대학교병원이 현재 국내에서 5개 병원만이 사용 중인 고해상도 디지털 체담도 전용 내시경 스파이클래스 DS(SpyGlass™ Direct Visualization System)를 도입, 체담도계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체담도계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ERCP)이다. 이는 체담도계로 연결되는 구멍인 유두부를 십이지장경으로 접근하여 카테터 등을 삽입하여 조영제를 주입함으로써 얻어진 X-ray 투과 사진을 보면서 시술하는 방법이다. 간접적인 방사선 영상을 바탕으로 시술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원광대병원이 도입한 '스파이클래스 DS'는 일회용 디지털 담체관 내시경으로서 고화질의 카메라 장착된 매우 얇은 내시경을 직접 십이지장 유두부로 삽입하여 직접 담체관의 선명한 디지털 이미지

를 보면서 진단 및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기술을 임상에 적용, 체담도계에 고화질의 디지털 영상을 얻음으로서 직접 병변을 보면서 조직검사가 가능하게 되어 이전에는 조기 진단이 어려웠던 체담도 환자의 진단율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간내 담석이나 매우 큰 담도내 결석 같은 경우 스파이클래스 DS를 담체관에 삽입해 쇄색술을 실시하면 한 번의 내시경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태현 교수는 "이번에 도입한 스파이클래스 DS는 그 직경이 3mm 정도로 매우 얇고 디지털 해상도가 이전 단계의 스파이클래스에 비해 4배 정도로 향상되어 이전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체담도계에 진입이 가능하여 선명한 영상을 통한 체담도 질환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단과 시술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립도서관, 도서 1만 4000여권 기증받아

군산시민들이 집에서 잠자고 있는 책 5,000여권을 군산시립도서관에 기증하여 책에 날개를 달아줬다.

군산시립도서관에서는 지난 한달 진행된 '도서기증 캠페인'을 통해 시민은 물론 기관·기업체들로부터 총 1만4,000여권의 도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2017 도서기증 캠페인'에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1인 3권 이상의 도서를 기증 목표량을 초과한 7,000여권의 도서가 기증되었다.

(㈜타타대우상용차, ㈜케이지산업개발, 농협은행(주)군산지부, 군산조선소기능장회, (주)국인산업, 군산상공회의소, (주)군산도시가스, 군산시립조합 등 기관과 기업체로부터 새 책으로 2,000여권을 기증받는 등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기증된 도서는 도서관 장서확충 및 군부대, 복지시설·아동시설 등에 재기증해 시민들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장현 기자

익산시, 청소년의 달·성년의 날 기념식

청소년상·모범 청소년·모범성년 등 30명에 표창

익산시가 5월 청소년의 달·제45회 성년의 날을 맞아 15일 오전 시청 상 황실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익산시 청소년상, 모범청소년, 모범성년, 청소년지도자 등 3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청소년상 도선우(18, 성일고), 이수우(12, 이리북일초), 조주안(15, 함

영중), ▲모범청소년상 김민지(17, 진경여고), 심동현(18, 전주생명과학고), 이주현(16, 합영여고), 김정훈(10, 이리중앙초) 등 18명, ▲모범성년상 정다예(19), 허운서(19, 원광보건대), 장선우(19) 등 8명, ▲청소년지도자상 박영률(30, (사)새벽이슬)이 선정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